



불평등해소정책 DB구축사업단 2단계 사업 진입

사업단은 2022년 8월 한국연구재단의 단계평가 결과 2단계 사업 진입에 성공했다. 2단계 사업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3년이다.

2단계 사업에서는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불평등해소 관련 DB를 구축하고 데이터 간의 연계성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집하는 데이터 유형은 역사적 데이터와 통계 데이터, 패널데이터이다. 역사적 데이터의 경우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관련 판례, 조례, 행정심판 등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통계 데이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지역별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각화하며, 패널데이터는 불평등 및 공정성 인식과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한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근거기반 복지연구의 토대가 되어 사회복지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 문제의 쟁점을 분석하여 지역별 맞춤 복지정책을 모색하는 한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적 복지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과학연구소 콜로키움 개최

지난 11월 30일 <Why Do Young Men Oppose Gender Quotas? Group Threat and Backlash to Legislative Gender Quotas>를 주제로 사회과학연구소 콜로키움이 개최됐다. 발표는 정치외교학과 김정현 교수가 맡았고 사회학과 김영미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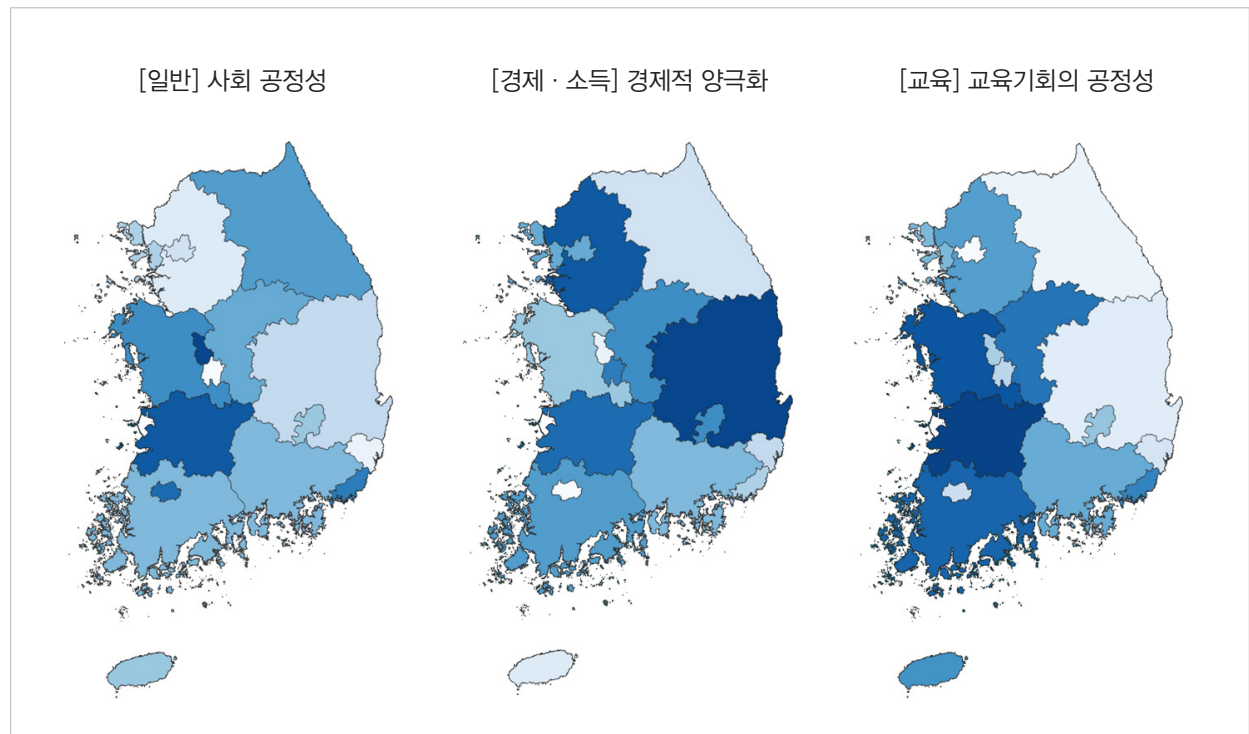
2022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콜로키움

사회과학연구소 2022년 11월 콜로키움

제 목:	Why Do Young Men Oppose Gender Quotas? Group Threat and Backlash to Legislative Gender Quotas
발 표:	김 정 현 교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토 론:	김 영 미 교수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일 시:	11월 30일 (수), 오후 12:00 - 1:30
장 소:	연희관 401호 국회의장 이만섭 Hall
주 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문 의:	ssri@yonsei.ac.kr 02-2123-3538

〈2022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조사〉 설문 결과 II: 지역별 불평등 분석

불평등해소정책 DB구축사업단은 지난 4월 “2022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동 조사는 경제·소득, 교육, 건강, 근로·노동, 다문화·이주민, 정보·기술 등 6개 부문별로 불평등·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역별로 주요 부문별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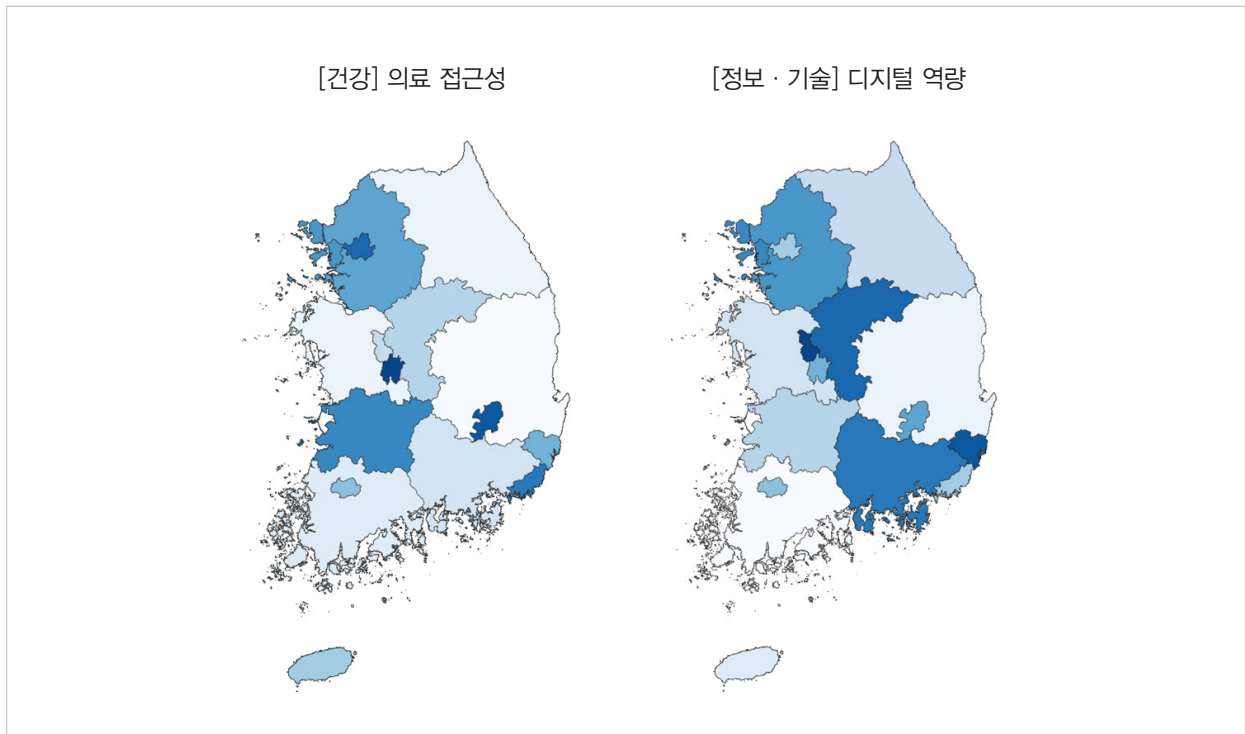


* '사회 공정성'과 '교육기회의 공정성'은 색이 짙을수록 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양극화'의 경우 색이 짙을수록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함을 뜻함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세종과 전북에서 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반면 수도권과 경북에서는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소득 불평등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서는 경북과 경기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세종과 광주, 강원 등에서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 불평등의 경우 ‘교육기회(대학 진학 등)는 나의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주어진다’에 대해 전라권과 충청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서울과 강원, 경북의 경우 교육기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 접근성'은 색을 짙을수록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을 말하며, '디지털 역량'은 색이 짙을수록 디지털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함

건강 불평등은 의료 접근성과 관련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진료(소아과, 내과, 안과, 산부인과 등)를 받을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에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강원과 경북 등 대다수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높아, 지역별로 의료 접근성에서 확연한 불평등이 나타났다.

정보·기술 불평등 측면에서는 '디지털기기(PC나 모바일 기기 등)를 이용하다 잘 모르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문항을 통해 디지털 활용 역량을 조사했다. 수도권과 충북, 경남 등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반면, 경북과 전남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역량에서도 지역별 불평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